

2009년 7급 국가직

유두선 교수 제공

1. 문항 분석과 강평

1) 출제 문항 분석표

영역	출제문항수	문제 유형
문법	5	문장부호, 어법에 맞는 표현, 품사, 표준발음, 어문규범
한자, 한문	5	한자어 사용, 한자표기, 한문문장(2), 한시
논설, 수필	4	글의 특징, 내용과약, 단락순서, 문장 삽입
어휘	3	속담, 어휘 뜻풀이, 어휘의 의미
소설	1	내용과약
고전시가	1	시상전개 방식
논리	1	오류과약

2) 문제 총평

한자, 한문 문제가 지나칠 정도로 많아서 무척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이었다. 이제는 한문 문법과 한문문장도 공부해야 되겠다.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문제였다. 논설, 수필 부분의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착실한 독해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. 문법도 단순 암기 위주로 공부해서는 힘이 들 것이다. 원리를 따라 차근차근 정리해 두면 빠른 시간 내에 정복할 수 있을 것이고 고유어 속담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.

2. 문제 정답과 해설

문1) 묶임표 안의 말과 바깥 말의 음이 다를 때는 대괄호([])를 써야 한다. 낱말[單語], 토씨[助詞]로 고쳐야 한다

답 ②

문2) 한자 독음과 어휘 뜻을 함께 묻는 문제에 해당한다. ① ‘가뭇’과 ‘비옥’해졌다는 어울릴 수 없다. ② ‘부박’은 실없고 경솔하다는 뜻이다. 뒤의 내용과 호응된다. ③ ‘포퓰’은 칭찬과 나무람이라는 뜻이다. 매도한다는 말과 어울릴 수 없다. ④ ‘조우’는 우연히 만난다는 뜻이다. 치밀하게 계산한다와 어울릴 수 없다.

답 ②

문3) 소를 통해서 자신의 권태로움을 묘사하고 있다. 따라서 대상을 통해 서술자의 심리를 묘사한 것이다.

답 ③

문4) ‘捲’은 주먹 권, ‘倦’은 게으름 권이다. 여기서서는 倦이라 써야 한다. ‘亾’변과 ‘扌’변만 구별할 수 있어도 답을 찾을 수 있다.

답 ④

문5) 일부 손님을 갖고 봄비는 시간을 판단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한다.

- ① 전체 집합의 특징으로 부분의 특징을 말하고 있으므로 분할의 오류
- ② 한두명의 골프 선수의 일을 가지고 전체 여자를 판단했으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
- ③ 부분의 속성으로 전체의 속성을 말하고 있으니 결합의 오류
- ④ 오류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.

답 ②

문6) ㉠ 한 사람이 잘되면 친척이나 친구가 덕을 입는다는 뜻

- ㉡ 모르는 체 시치미를 떼는다는 뜻
- ㉢ 남의 세력 밑에서 기운을 편다는 뜻. 여기서는 ‘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’가 적당하다.
- ㉣ 사람이 인색하다는 뜻

답 ③

문7) 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보니

- ③ 참 주책없다.
- ④ 알량한 자존심.

답 ②

문8) ‘호사’라는 말은 반어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며, 위선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다. 서참의의 조사는 친구의 진정이 담긴 것이다.

답 ④

문9) 에움길은 ‘굽은 길’을 뜻한다.

답 ②

문10) 젊었을 때는 기운과 감정이 잠과 더불어 한가지여서 근심 걱정이 없었다. 그러나 지금은 기운과 감정이 온전치 않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는 내용이다. 따라서 근심과 걱정은 나의 기운과 감정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.

답 ③

문11) ‘미친’은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‘짓’이라는 명사를 꾸며 주는 것이다. 합성어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띄어써야 한다.

답 ①

문12) (가)글은 법가와 도가 중 법가에 대한 내용. (나)글은 무엇 때문에 유가가 한나라의 정통 지위를 얻을 수 있었을까? 는 화제를 제시, (다) 한나라에서는 유가가 정통지위를 얻게 되었다. (라) 도가에 대한 내용

(나)글은 화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맨처음 와야 한다. 따라서 답은 ③, ④중 하나다. 그리고 (가)글 다음에 (라)가 와야한다. 따라서 (나)-(가)-(라)-(다)가 정답이다.

답 ③

문13) 고구려 노래인 ‘황조가’이다 전반부는 자연의 정다움을 후반부는 화자의 고독을 노래하고 있다. 따라서 선경후정, 대조적 전개를 보여 주고 있으며 4행으로 되어 있어서 한시의 기승전결로 이루어졌다.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 이동된 것은 아니다.

답 ④

문14) ‘사숙’은 존경하는 사람에게,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없으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학문을 본으로 삼고 배움을 뜻하는 말이다.

답 ③

문15) ㉠ 고구려 : 동이의 옛말에 부여의 별종이라 해서 언어와 여러 일들이 부여와 같고 그 성질과 기운, 의복에는 다른 점이 있다.

㉡ 동옥저 : 그 언어는 고구려와 더불어 대부분이 같고 때때로 약간 다르다.

㉢ 예 : 늙은이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 한다. 언어, 법속이 대개 고구려와 같고 의복이 다름이 있다.

㉣ 읍루 : 그 사람 생김새는 부여와 비슷한데 언어는 부여, 고구려와 같지 않다.

답 ④

문 16) 나보다 먼저 나서 그 도를 들음이 진실로 나보다 먼저라면 나는 좇아서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. 나보다 뒤에 났어도 그 도를 들음이 또한 나보다 먼저라면 나는 좇아서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.

‘乎’는 비교, ‘而’는 이인칭 대명사로 쓰인 것이다.

답 ②

문 17) ‘다시 더 한잔’의 의미 이므로 復(다시 부)를 넣어야 한다.

兩仁對酌山花開(양인대작산화개)

그대와 마주하고 술을 마시니 산꽃들이 피었구나

一杯一杯復一杯(일배일배부일배)

한잔드세 한잔드세 또 한잔드세

我醉欲眠卿且去(아취욕면경차거)

나는 취해 잠들테니 자네는 마음대로 갔다가

明朝有意抱琴來(명조유의포금래)

내일 아침 마음이 있으면 거문고나 안고 오게나

답 ①

문 18) ㉢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전통 문화는 계승과 변화가 다 필요하고 외래문화의 수용과 토착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볼 때 ‘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’라는 말은 ㉢에 들어가야 한다.

답 ③

문 19) ① [밥끼] ② [디그시] ④ [막따]로 발음해야 한다.

답 ③

문 20) [한글 맞춤법 12항] 붙임2에 보면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의 경우 뒤의 단어는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‘회계연도’가 바른 표기다.

답 ①